
논술과 구술의 기초 다지기

이상태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0. 들머리

논술은 행위의 연장선에 선 정신 작용이다. 말이나 글만은 아니다. 특정 대상/사태를 대상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조리 있게 표현하는 행위를 논술이라고 부른다. 어릴 때 장난감이나 관심을 둔 물건을 살피고 손으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일을 하는데, 커서 마음속에다 개념의 덩이들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그 구체 행위의 연장에 있다.

지도하는 편에서는 논술의 능력을 넷으로 해체하고 이들을 구조화하여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은 논술할 주제나 제재에 해당하는 1) 특정 대상 세계의 이해력이 한 요소이고, 그에 대한 2) 사고의 능력이 필요하며, 사고 전개를 오류 없이 합리적으로 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3) 논리의 능력이 요청되고, 이 모두를 이끌기도 하고 반영하기도 하는 4) 문체학적 능력이 요청된다. 이들 각각은 다시 하위의 능력들을 위계적으로 지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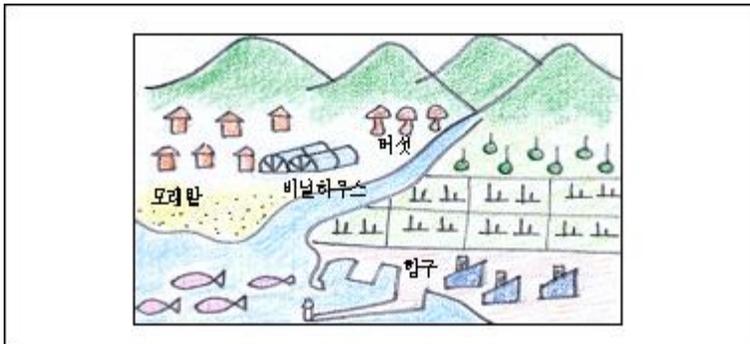
있다.

논술자가 실제로 논술을 행할 때에는 이들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넷 모두가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어 발현된다. 그러나 논술을 지도할 때는 이들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이들 각각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1. 특정 대상 세계의 이해력

대상이 없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 사람됨, 순수 이성’ 등 추상적 개념을 마음 자리에 떠올려 놓고 놀기보다는 축구공을 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기가 더 쉽고 이 구체적 놀이가 앞의 추상적 실체와의 놀이에 상당한 부분이 중첩된다. 대상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잡아낼수록 생각이 더 튼튼하게 진전되므로 우리는 관찰하거나 대상에 더 다가서기를 늘 요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난여름에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을 예시하였는데 3학년 사회 과목에서 이런 문항을 예시하였다. “그림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며 생활하는지 예를 세 가지 쓰시오.”라면서 아래 그림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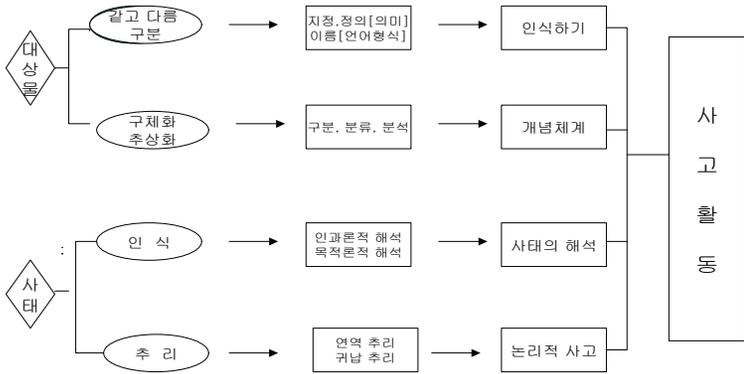
해당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학생은 여러 추상 정도의 반응을 할 수가 있다. ‘농부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다.’보다는 ‘수형이 아버지는 비닐하우스에 들깨를 심어 들깨잎을 민수네 횃집에 파신다.’가 더 구체적인 답이다. 이런 정도의 마을이라면 ‘한수 아버지는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다.’는 구체적인 답이지만 이보다는 ‘한수 아버지는 바다로 나가서 쥐치를 잡는다.’ 정도가 이 현실에 더 근접한 답이 된다. 사실에 더 근접하기는 논술의 기초 가운데 하나이고 이를 초등 3학년 사회 과목에서 가르친다.

생각하기의 숨은 원동력은 어릴 때부터 직접 오감을 통하여 여러 사물을 익히며 사는 일에서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부대끼고 느끼며 함께 사는 데서 비롯한다. 게다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성찰을 꾸준히 하는 일도 논리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논리란 보편적 사고의 길로서 자신의 창조적 직관적 인식 구성물도 논리에 실어야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구성물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관조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는 원숙한 학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보이는 덕성이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갇힌 이들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할 때도 ‘인지 치료’를 베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과정들의 수행이다.

대상세계에 더 잘 다가서는 길은 더 오래 끈질기게 주의를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아래 사고 작용을 충실히 하는 것인데 이걸 돕는 이는 결국 본인이다.

2. 사고 활동의 갈래와 순서

흔히 사고 활동은 창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로 나눈다. 논술과 관련되는 창조적 사고는 살고 있는 현실의 특정 모습을 ‘부정’해 보거나 ‘질문’해 보아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세계 이해의 전제를 검토해 보는 일이고, 후자는 사고 활동의 과정을 더 잘게 나누고 각각을 ‘따져 살피는 일’을 하는 활동으로서 아래 그림의 여러 활동이 포함된다.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기 - 개념 체계 세우기 - 해석하기 - 이론 완성/글 완성]은 학자의 학설 탐구나 필자의 글쓰기에서 공통되고, 수용자로서 학설을 이해하거나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은 이의 역순이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개념 체계가 더 반듯해질 수 있고 거꾸로 개념 체계가 더 반듯할수록 인식이 더 깊어진다. 유전(遺傳)에 관해서 보면 (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식과 (나) ‘씨도 독은 못한다’는 인식과 (다) ‘우성/열성’ 등 개념을 만든 멘델의 인식과 (라) 종의 변이에 관한 다윈의 인식과 (마) ‘DNA 이중 나선’의 인식과 (바) ‘유전자 지도’에 드러난 인식 등에서 인식의 깊이와 개념 체계의 정교함과 대상 세계 해석의 탄탄함에 인과론적 차이가 있다.

특기할 일은 교과 교육에서 요즘은 수용자[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발견자[학자]가 대상에 대해 펼친 사고의 과정을 모두 따라잡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표에 나타난 네 과정은 암기가 목적이 아닌 모든 교과목 활동에 공통되는 활동이다. 이른바 ‘구성주의’ 교육 사조는 각 교과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체계를 학생들이 결과로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주제적으로 체험해 가는 사고 훈련/논술 훈련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논술 훈련은 ‘사회’나 ‘과학’의 여러 교과에서 시간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사고의 훈련은 ‘국어’ 교과보다는 다른 교과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의 교육은 한편으로는 [말 - 사고]를 넘나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 - 대상 세계]를 넘나들면서 그 긴밀한 관련을 크게 유념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과 개념 체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학생 스스로 추적하면서 학자들이 느꼈을 성취감과 세계에 대한 경외감에 동참하여 내면화해야 하는데, 이 일은 해당 교과에서 수행하기가 더 적합하다. ‘국어’ 교과에서는 말을 세계나 사고와 알뜰히 관련짓지 않고 가르치는 수가 많을 뿐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인간 지성의 계발 과정을 해당 교과처럼 계속 추적하기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어 과목에서는 묘사문이나 설득문도 가르치는데 그런 글에는 과장이나 비유 또는 의도적 오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논술 행위에서는 이들을 모두 금기로 친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논술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논술의 주제는 추상적 명제이며 따라서 추상적 개념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게 되고 해석의 폭도 비교적 넓다.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은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학생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를 측정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 자리에서 추상 개념을 가지고 위의 표에 있는 사고의 요소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를 잴다.

모든 교과는 독서를 통하여 사고 활동을 실습하기도 한다. 글은 대상이 되는 사태나 개체에 대해서 필자가 생각을 가하여 얻은 결과이다. 절차적/규약적 지식(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의 숙달 단계를 넘어서면 글을 읽을 때는 필자의 사고와 독자의 사고가 만나게 된다. 모국어에서 글의 이해도의 차이는 결국 필자와 독자 사이의 사고 수준상 차이에서 생긴다. 어려운 단어는 사고 과정에서 개념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고 글의 이해도는 그 속에 든 명제상의 복잡성이나 추상성 등에 귀결되며 사고 수준이나 추리의 복잡성, 개념 체계상의 복잡성과 추상성 여부가 글의 난이도를 결정한다. 이 점을 유념하여 각 교과는 학생의 사고 활동을 위한 자료를 선정하고 있다.

사고 훈련을 위하여 학생은 모든 사물이나 모든 교과를 익힐 필요가 없다. 관심과 지식의 축적이 된 한 교과나 한 학설을 추적해도 위의 사고 과정이 다 들어 있으므로 그것을 추적하면 충분한 훈련이 될 수 있다. 손쉬운 대로 <주기율표의 세계>에는 원소에 관한 인류의 인식-개념-해석 등이 잘 나타나 있고, <계놈 프로젝트>에는 유전에 관한 그런 과정이 잘 드러나 있으며 <통섭>에는 뇌과학과 유전학과 생물학, 문화 현상 등을 통합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 책들은 대상만 다를 뿐, 대상에 대한 사고의 과정은 같은 것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사고의 길이 녹아 있는 주사약이 없듯이 이들만을 효율적으로 훈련하는 간편한 책도 없다. 결국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지식에 관한 책을 택하여 그 인식사나 개념 형성사나 해석사를 따라잡는 것이다.

3. 사태 해석과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앞에서 본 사고 활동의 일부로서 특히 공상(空想)과 편견/선입견과 이해(利害)와 감정적 요소를 버리고 보편화/객관화를 향한 사고이다. ‘연역’이란 개념 분석 활동과 전제 검토 활동이고 ‘귀납’이란 사태 해석 활동이며 ‘오류 찾기’는 말과 그에 대응하는 세계와의 관련을 검토하는 활동이다. 이것들은 아주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살면서 은연중에 익히고 학교의 각 교과 공부에서도 이것들이 내면화된다.

연역이라고 하면 ‘삼단 논법’만을 떠올리는 사람은 연역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연역은 결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일단 분석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따지는 작업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펴낸 문제 예시 가운데는 초등 3학년 수학 과목에 (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명제 속의 개념을 분석하면 ‘직사각형’의 개념에는 [(1) 도형이다, (2) 변과 각이 각각 넷이 있다, (3) 네 각은 각각 직각이다, (4) 마주 보는 두 변은 길이가 같다]이고 ‘정사각형’의 개념에는 여기에도 [(5) 네 변의 길이가 같다]가 더 붙는데

[(5)]는 특히 [(4)]를 함의한다. ‘개는 척추동물이다’는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가)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진다. 초등 3학년에 ‘개념 분석’이라는 논술 행위의 일부를 수행한다.

예를 하나 더 들자. 같은 교과 같은 학년의 문제에 ‘724, 751, 706, 724, 715, 760에서 공통되는 점을 세 가지 이상 쓰라.’는 것이 있다. 문외한이 찾은 공통점은 [(1) 자연수 표기이다, (2) 십진법 표기이다, (3) 세 자리의 수 표기이다, (4) 백자리가 7이다, (5) 아래 두 자리 수 표기를 합하면 6이 된다, (6) 세 자리 수 표기를 합하면 13이 된다] 정도가 된다. (앞의 두 가지 및 각각의 개념 체계는 더 높은 학년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같고 다름’은 앞에서 본 인식하기 행위의 일부이고, 다른 대상에서 같은 점을 찾는 행위는 개념 체계 구성상 상위 개념 구성[=분류하기]의 한 절차이다.

귀납은 사태와 추론 사이의 설명력과 정합성 따지기가 핵심이다. 공상은 왜 설명력이 없을까, 한 사태에 관해서 밤새워 생각한 여러 추리 가운데 기존의 이론과 정합하는 추리는 무엇인가 등을 체계적으로 따져 가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수많은 사고 실험과 사고 훈련 끝에 사고의 달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 실험과 훈련의 자세한 도정(道程)이 책들에 있다.

오류는 위의 사고의 여러 과정에서 생긴다. 사실을 틀리게 인식하여 진술하거나, 개념의 체계를 잘못 잡거나, 정합(整合)하지 않은 이론을 끌어대거나 설명력이 없는 사실이나 이론에 억지를 부리거나 하는 데서 오류가 생긴다. 그 밖에도 논리를 비약하거나 비트는 데서 생기기도 하고 ‘말 - 의미/세계’의 관련을 틀리게 잡은 데서도 생기는데, 권위에 호소하거나 동정에 호소하거나, 인용을 끌어대거나 할 때는 그 명제들을 사실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논술의 주제[=최상위 명제]는 아래 표처럼 세 가지로 나뉜다.

사실 발견 명제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나 <자연 선택과 종의 기원> 등 학문 서적의 최상위 주제 내용이다. <주기율표의 세계>나 <개념 프로젝트>는 해당 사물과 사태에 관한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각 학자의 업적을 인문학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나는 생각한다.

<표> 논술 명제의 종류

명제		사실(발견) 명제	판결 명제	정책 명제
특성 표지				
사태의 성질		상태, 상태의 변화, 동작	인간의 의도 행위	인간의 의도 행위
사태 시공간 제약		없음	특정 시공간 판결문은 과거의 일	대개 특정 시공간 사태 정책 제안은 미래의 일
사태 속의 대상		사람, 사물, 사태, 개념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동
사태 속 대상의 제약		없음 <이 학생, 모든 학생>	특정 사태	대개 특정 사태임
판단의 종류		현실 사실에 맞고 틀림(참/거짓)	삶의 지향점에 맞고 틀림(일치/불일치)	목적 달성에의 효과(효과/역효과/경제성)
결론	결론의 직접 논거	결론에 직접적인 사실 명제/이론	비교되는 명제와의 평가 차이	대안과의 효율성 차이
	논거 명제의 성격	사실 명제나 이론	특정 시공간을 포함	대개 특정 시공간 사태
	증명 방법	연역, 귀납 기존 이론과의 정합성	상위 가치와의 정합성 가치와 유용성 정도	사태와의 정합성 달성하기 쉬움 등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참인지 ‘사람(과 동물)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각한다.’가 참인지를 여러 사실을 들어 밝혀내는 일이므로 과학 일반이 하는 작업이다. 수학 올림피아드나 과학의 여러 과목 올림피아드 및 지리 올림피아드에서 묻는 문제들은 모두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학생이 지닌 마음속 사고와 논리의 활동 역량을 쟁다. 이것을 논술 고사로 물으려면 특정 교과 안에서 특정 분야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교육 당국이 금하는 일이다.

판결 명제는 ‘-어라’나 ‘-어야 한다’처럼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처럼 정보량이 매우 큰 것도 있다. ‘넌 그 약속을 지켜야 해’를 더 자세히 진술하면 ‘네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에 더 부합한다’가 된다. 이처럼 판결 명제는 [가] 판결 대상 명제와 [나] 비교 대상 명제와 [다] 상위 가치 체계(=판결의 준거: 법률 조항이나 도덕적 준거) 및 [라] 평가어(= ‘더/덜 부합한다, 어찌해야 한다, 어찌해라, 옳다/그르다’ 등)로 구성된다. 법원 판결문의 ‘주문(主文)’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한 확인’)처럼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되나 그 ‘결정의 이유’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임에도 정보량이 2,600단어를 넘는다.

특정 사태를 명세해 주고 그에 대해서 도덕적 판결을 어떻게 내리고서 진술하는지를 물어 그의 도덕적 판단의 수준을 알아보는 질문지가 콜비 등(Colby, A. et. 1987)으로 나와 있다. 이는 학생이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기 위한 것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덕/윤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이런 논술을 훈련하고 있다.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 교육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정책 명제는 일상 대화에서 ‘-자, -어라’의 형태를 지니는 단순한 진술에서부터 정당의 정책문이나 회사의 제안서처럼 복잡한 형태까지 다양하다. 이런 글은 [가] 정책 내용 명제 (= 사실 명제로 환원 가능)와 [나] 정책 목적(어떤 경우는 상위 가치의 달성도)과 [다] 비교 정책 명제(=대안)와 [라] 평가어(= ‘효과가 더 크다.’)로 분석된다. 여러 대안들([다])을 가지고 [나]를 달성하는 데 드는 품과 경제성과 노력들을 견주어 역효과가 가장 적고 품이 덜 들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가]로 선택되는데 이런 내용이 정책 논술문에 나타난다. 이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특정 사태와 관련되는 내용을 매우 많이 자세하게 알아야 하므로 고등학생 수준의 논술문 훈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많은 교과 지식들은 개념 분석의 과정과 사태 해석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히려 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밖에서 술을 드시고 오시면 내게 용돈을 주신다’는 말을 할 때 이미 그 아기는 인과적/목적론적 사태 해석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두 사태들에 필연적 연관이 있는지 등에 관한 성찰이 없을 뿐이다. 그 성찰은 탐정 소설을 읽으며 풍부해지고 과학을 익히면서 정착된다. 이처럼 여러 교과의 지식들은 연역이나 귀납의 과정을 겪어 가공된 것들인데 학생들이 그들의 결과만 암기하면 맛있는 과자를 포장지만 쳐다보다 시간이 지나면 잊고 말게 되는 격이고 각각 지식 생성의 이치나 과정을 애써 따라가면 발견의 기쁨을 아이작 뉴턴과 함께하고 혀에 녹는 지식의 맛과 코를 스치

는 향기에 취하게 되며 두뇌 속/마음속에 있는 눈과 손이 새 지식을 구분하고 인식할 안목을 지니게 될 것이다.

4. 문체학적 요소

대상에 대한 이런 사고의 과정과 귀결은 글로 써진다. 논술문이 글이라는 점만 보면 이 훈련을 국어 교과에서 시켜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여기까지 이 글을 읽어 온 독자는 눈치 채었을 것이다. 국어과는 논술만을 훈련하지 않는다. 사실의 바르고 정확한 진술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묘사문과 서사문 쓰기를 열심히 훈련하고, 간단한 사태의 포괄적이고 유기적 관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문 쓰기를 훈련하며, 경쟁 사회에서 주제적 자아가 남을 잘 설득하기 위해 설득문 쓰기를 훈련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 작품의 감상력도 길러 준다. 이런 여러 일에 고래로부터 전하는 수사(修辭)적 기법도 가르치는데 이들 가운데 열거는 귀납적 일반화와 거리가 먼 해석을 이끌 수가 있고, 영탄이나 도치에서 필자의 논리는 공허하고 감정이 발가벗고 드러날 수 있으며, 비유는 재정의(再定義)되어야 하는 오류를 지니고, 과장은 대상의 정확한 진술과 거리가 멀며 인용은 터무니없는 권위를 끌어 붙일 수가 있다. 논술 훈련을 위해서 국어과가 할 뉘은 일정하나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다른 교과의 교사들이 텍스트(말/글의 덩이)의 구성소에 관해서 정당한 이해를 하고 나면 논술의 능력을 더 잘 함양할 수 있다. 논술을 포함한 모든 텍스트는 아래 여러 요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텍스트의 여러 요소

- (1) 형식적 요소: (가)발음·글자·맞춤법, (나)어휘, (다)문법, (라)문단, (마)글
- (2) 특정 텍스트의 의미 구성체 요소: (가) 핵심 개념/명제의 체계 분석, (나) 논거와 논증 방식 분석
- (3) 텍스트 생성을 위한 사고의 요소: <앞의 ‘사고/논리’ 부분에서 살폈

음>

- (4) 태도와 윤리 요소: (가) 따지기와 되새기기, (나) 윤리(베끼지 않기, 사실과 맞지 않은 진술 않기)

국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1) 정도뿐인데 이것은 모든 교사도 다 알고 있으며 학생도 상당한 부분의 기능을 교육의 초기에 획득한다. (1 가)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므로 학생들도 2-3학년이 되면 거의를 익혔고, (1 나)는 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상당한 어휘를 알고 있으며, 전문 개념의 어휘는 전문 분야 (해당 교과)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다. (1 다)는 학생이 초등학교에 오기 전에 기본은 익히고 있으며 문법 표현의 정밀성은 사고나 논리의 정밀성과 뗄 수 없는 관련을 지닌다는 점을 국어과나 다른 교과의 교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위의 (2)는 특정 분야의 내용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위의 (3)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성찰과 논리’(‘철학, 논리학’이 아님)를 독립 과목으로 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위의 (4 가)를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학설 형성에 관여한 원전(을 우리말로 깔끔하게 번역한 책)을 학생에게 직접 읽히고서 교사는 말을 얹고 참았다가 면담을 통해서 학생의 마음 자리에 얼마나 자세히 견고하게 들어와 앉았는지를 조사하고 부족한 면을 지도해야 한다. (4 나)를 위해서는 각 교과의 수업을 두세 시간 붙여 놓고 학생에게 직접 교실에서 잘게 쪼개진 과제들에 대해서 논술문을 시간마다 쓰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은 내 마음 자리에 소화된 내용을 토로하는 것임을 깊이 가르쳐,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따오는 짓을 엄격하게 금해야 한다. ‘자료’는 내 마음 자리에 소화되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학부형도 알아야 아이에게 암기 훈련을 강요하지 않게 되고 교육이 학교의 교실로 돌아간다.

5. 심층 면접

교수는 수험생에게 ‘너는 수능에 몇 점일 것 같으나, 네 아버지는 무엇

하시느냐, 너는 우리 학과에서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싶으냐'는 등을 묻지는 않는다. 학생이 써낸 자기 소개서와 수학 계획서를 읽고 그 내용의 일부를 묻거나 또 해당 학과의 기본 개념들을 물어서 학생이 허풍을 떠다면 더 물을 것도 없고, 마음 자리에 개념 형성 능력이나 전체 분석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사태의 해석력이 어느 만큼인지를 가늠하여 마음(사고)의 성능이 어떤지를 알아내는 것이 마음 들여다보기(=심층 면접)이다. 물음의 제재를 학생의 발언에서 구해 출발하기가 쉬우므로 미리 정한 제재는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준비를 학생이 따로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이제까지 살펴본 능력들을 평소에 착실하게 닦아 두는 것으로 족하다. 논술을 부과하지 않는 대학은 면접을 통해서 위의 능력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점을 보아도 면접에서 알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소개서에 거짓말이 있거나 학생 자신이 쓰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준에 맞지 않은 답을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교수가 학생의 면전에서 '옳다/그르다'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학생이 알아 두어야 한다.

6. 마무리

우리는 지금까지 논술 능력의 구성소를 이해하면서 덩으로 이 교육이 고교 3학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학교급의 전체 학년에서 이루어짐을 알았고, 또 국어 과목에서만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목(외국어 등 암기 위주인 과목 이외)의 교육에서 오히려 더 잘 가르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모든 교사와 자녀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은 우선 인간 인지의 생물학적 토대와 모국어와 인지와의 관계를 다룬 책들을—이들테면 제럴드 에덜먼의 <신경 과학과 마음의 세계>, 존 설의 <정신, 언어, 사회> 및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정도라도—읽으면서 그 책들의 내용과 함께 각 저자가 설명할 내용들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익히고 독서 행위 중에 독자 자신의 마음 자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활동하는지를 섬

세하게 성찰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 김영정(1997), “언어, 논리, 존재—언어철학, 논리철학 입문”, 철학과현실사.
- 서울시교육청(2005),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예시”.
- 이상태(1993), “국어교육의 길잡이”, 한신문화사.
- 이상태(2002), ‘사고력 함양 중심의 작문 교육 계획’, “어문학” 75집, pp.61-75.
- 이상태(2003), “고등학교 작문”(고등학교 국어과 2종도서), 형설출판사.
- 헌법재판소 판결문(2004년 10월 21일 선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 Brooks, A., Don Ross (eds.) (2002) Daniel Denn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석봉래 옮김: 2002 “다니엘 데넷”, 몸과 마음).
- Colby, A., Lawrence Kolberg, Betsy Speicher, Alexander Hower, Daniel Candee, John Gibb, Clark Power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elman, G. (1992) Bright Air, Brilliant Fire—on the Matter of Mind (황희숙 옮김: 1998,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범양사출판부).
- Searle, J. (1998) Mind, Language and Society. Brockman Inc. (심철호 옮김: 2000, “정신, 언어, 사회”, 해냄).
- von Wright, G. H. (1971)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Cornell University Press (배영철 옮김: 1995, “설명과 이해”, 서광사).
- Wilson, E. (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최재천, 장대익 옮김: 2005, “통섭”, 사이언스북스).
- Wilson, J. (1963) Thinking with Concepts, Cambridge University Press.